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16년 만에 준공

정헌율 시장, 공사 현장 방문 "국립익산박물관 · 어린이박물관과 관광 시너지 효과 기대"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16년 만에 준공되면서 익산시가 전국 최고의 관광 인프라를 갖춘 역사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8일,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마무리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시에 따르면,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6년 관광지 지정 이후 10여 년간 토지매입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정 시장이 취임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실시설계 완료, 문화재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연이어 완료하며 사업에 진전을 보여왔다.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국비 포함 386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총 면적 10만8,743㎡ 내에 전통문화체험관, 광장, 관광안내소, 주차장, 녹지공간 등의 다양한 관광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전통문화체험관은 현재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와 함께 지난해 1월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완공에 앞서 익산시는 지방도 722호선 1km 구간 이설 및 4차선 확장을 지난해 8월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미륵사지 관광지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통 편의 만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16년 만에 준공되면서 익산시가 전국 최고의 관광 인프라를 갖춘 역사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미륵사지 관광지는 2020년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며 "이번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완공되면 수려한 조경과 다양한 야간 경관조명 등이 갖춰져 세계유산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최근 개관한 어린이박물관 등과 함께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월 말까지 미륵사지 관광지 내 편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준공행정절차 등 최종적으로 전북도 협의를 득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기자

"국악, 전북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

황호진 전 부교육감, 전북학생국악원 설립 등 활성화 정책 제안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전북학생국악원' 설립 등 국악교육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전북도립국악원에서 진행된 교육현장정책 간담회에서 황 전 부교육감은 "국악은 전북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이다"며,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하는 '전북학생국악원' 설립, 국악 무상교육 바우처 지급, 지역별 국악중점학교 심화과정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중 '전북학생국악원'에 대해선 "학생 국악 교육이 전국 최고의 기관이 될 것"이라며, 관광객을 위한 One-day 클래스 단기 프로그램 · 집중 심화 과정 등 국악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한옥마을 인근 전주중앙초등학교 교사 일부를 활용해 설립한다면 '전주한옥마을'과 '전북학생국악원'을 연계할 수 있고, 이곳을 통해 '한복', '국악 버스킹' 등 전북의 대표 문화로 만들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정책 행보를 이어오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교육정책전문가'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장,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현장형 교육전문가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송사집' 완역 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가 구한말의 의병장이자 호남의 대표적인 학자인 송사 기우만의 문집인 '송사집'을 완역 · 출간했다고 밝혔다.

'송사집'은 기우만의 문인인 양회갑의 주도로 1931년에 간행된 책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팀(연구책임자 김건우)은 1931년에 간행된 초간본을 저본으로 해 2020년 12월 11권을 번역 · 출간했고, 2021년 12월 나머지 7권을 출간해 총 18권의 책으로 완간했다.

그간 기우만의 방대한 저작이 비교적 온전히 전해진 데 비해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송사집' 완간은 호남 항일투쟁의 정신적 지도자인 기우만이란 인물 연구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영호남 유림의 네트워크, 사상사, 사회사 등 여러 분야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팀은 산적한 미번역 고전 자료를 번역, 고전의 대중화와 지역의 번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시작됐다.

/장은성 기자

풍석 서유구 선생 '임원경제지'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협력

우석대-풍석문화재단, 업무협약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재)풍석문화재단(이사장 신정수)이 업무협약을 체결, 풍석 서유구 선생이 남긴 '임원경제지'의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오석흥 산학협력단장, 신정수 이사장, 진병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인적 · 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교육과정 협의 및 실무 교류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 △대학 내 관련 연구소 설치 △각종 기획 프로젝트 공동참여를 위한 협력 등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우석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재)풍석문화재단과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풍석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학술활동과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전북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우석대학교와 (재)풍석문화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오석흥 단장, 남천현 총장, 신정수 이사장, 진병춘 사무총장.

남천현 총장은 "실용주의 인재를 키워내는 우리 대학교와 조선 후기 실학 운동의 정점을 이룬 서유구 선생을 재조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풍석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 · 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를 통해 풍석 서유구 선생의 '임원경제지' 관련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립교향악단, 20일 신년음악회 개최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오는 2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2022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음악회에서는 러시아 작곡가인 글린카의 '루스란과 루드밀라 서곡'을 시작으로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거슈인 '랩소디 인 블루',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등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최영선의 객원 지휘로 피아니스트 송영민, 플루티스트 김효정이 출연한다.

지휘자 최영선은 만 15세의 나이로 '빈 시립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본과에 최연소로 입학한 이후 '그라츠 국립음악대학'에 최연소로 들어가 피아노과 · 합창 지휘과 ·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했다.

그는 서울대 음악대학원 지휘과를 졸업하고 현재 숙명여대에서 후학 교육에 힘쓰고 있고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전임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송영민은 이탈리아 Pedara 국제콩쿠르 1위, 러시아 벨리츠키 피아노 콩쿠르 3위, 그리스 테살로니키 실내악 국제 콩쿠르 3위를 비롯해 여러 차례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젊은 나이에 보기 드문 음악 색깔과 테크닉을 겸비한 연주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김윤상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